# 남편 살해 이순심 씨 위한 방청인단 결성

여 94 4.8

23년 동안 남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살해한 이순심 씨 1차 재판이 지난 22일 수원지방법원 210호실에서 속개된 것과 함께해 〈이순심 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〉이 결성됐다.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수원지부를 비롯해 수원시 가톨릭 여성연합회를 비롯한 수원지역의 19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방청인단은 공동변호인단(고재성 김칠균 배금자 이종걸 외 4명)과 함께 이순심 씨 무죄석방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.

지난 21일 가정법률상담소 수원지부 강당에서 열린 결성식을 가진 방청인단은 결의문을 통해 "이순심 씨 사건은 매맞는 아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과 제도가 전무한 우리 현실이 만들어낸 참극"이라며 "가정폭력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것"을 촉구했다.